은평구의회 이연옥의장 취임1주년 인터뷰

'여성만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구정 챙겨, 신뢰받는 의정 구현'

은평구의회 이연옥 의장이 제8대 의회에 취임한지 1주년이 되었다.
시민들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구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 곳곳을 누볐다.
3선 출신인 이연옥(진관동) 의장은 제6대, 제7대를 거쳐 제8대 의회 입성에 성공하고, 은평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여성의장에 선출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은평의 여성 지도자이다. 남성보다 더 뚝심 있는 결단력과 조직을 이끌어가는 강력한 지도력,
날카로운 정치적 감각과 어머니같은 포용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리더쉽이 뛰어난 여성 정치인이다.
무엇보다 이연옥 의장은 제8대 의회를 '소통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 힘이 되는 의회'로 정착시켜
비회기 중에도 의원들로 북적이는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 최초의 여성출신 의장으로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의장에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의원 상호간에 소통케 하고 각기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성 의장으로서 강점을 최대한 살려 의원간 화합을 도모하면 꼼꼼하고 세심하게 구정살림을 챙기고 현장을 중심으로 주민과 친근한 교감을 쌓아나가겠다.

Q. 1년간 의회에서 추진한 성과는?

지난 1년간 3회의 정례회와 7회의 임시회를 통해 구정파트너로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 역대 의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과 질에서 왕성했다. 특히 전체 조례접수 건수 중 의원발의 조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8대의회 1년 동안 19건으로 이는 7대 동 기간 12건에 비해 58%나 급증했다.
또한 모든 정책결정은 항상 주민을 잊지않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답을 찾고자 8대 의회 개원식을 간소화하고 대신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진일보한 방향으로 개정해 투명하고 내실있는 해외연수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으며 제267회에서는 일본 아베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조속한 중단을 요구하는 결연한 의지를 담아 보여줬다.

Q.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신분당선 삼송 연장에 대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중간 점검에서 사업성이 낮아(B/C 0.86)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평가를 내렸는데 은평구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어떤 기분이었나?

저 뿐만 아니라 구청장 및 구의원 모두 참담했다.
특히 저는 2015년 7월 21일 구의회 정례회의부터 신분당선 연장 추진에 대해 꾸준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진관동을 대표하는 주민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구의장이라는 역할이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책임감은 더욱 크게 다가왔다.
서울시에서는 해당 수치가 낮게 나온 사실을 인정하며, 이용객을 높일 방법을 연구하여 KDI에 전달하기로 했다. 최종적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2019년 연말쯤 나올 예정이니 주민들과 희망을 갖고 한 번 더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집행부와 잘 연결해서 풀 수 있도록, 보다 행복하고 편리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구민에게 한마디?

은평구의회가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은평구민의 행복입니다.
'궁즉통(窮則通)'이란 말이 있습니다. '궁하면 통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궁지에 몰리면 변화를 도모해야 하고, 변화를 도모해야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극복에 대한 통찰을 엿볼 수 있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생각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저는 8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진실은 항상 통(通)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구민들의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귀를 열어놓고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왜냐면 서로 소통이 잘 되면 곧바로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는 다시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모여 함께 움직이면 크든 작든 집단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주민 각자의 변화된 생각과 행동이 우리 동네를 바꾸고 은평구를 변모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민이 소통행정의 상호협력자로서, 그리고 그 주인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힘들고 고단한 과정일지라도 꿋꿋이 시대적 소명을 다 할 것입니다. 더 나은 은평구를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기에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일에 매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응원해 주셨던 것처럼 많은 지지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6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

은평구의회(의장 이연옥)는 제267회 임시회가 7월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각 상임위에 부의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은영)는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개정안, 통 · 반 설치 조례개정안,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안,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부 개정안, 구립 불광 캐슬어린이집 · 자연숲어린이집 · 백련산 해모로 어린이집 · 녹번 캐슬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 이었으나 재상정된 공익활동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논란 끝에 상임위에서 또 보류되었다. 또 재무건설위원회(위원장 정남형)에는 은평구 가입선로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안,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폐기물관리 조례 개정안, 목공체험장 조례 개정안,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 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이다.